

남해 살아가기 여행 상품 만족도 98%

✎ 허귀용 기자 | ㉸ 승인 2023.12.10

남해관광문화재단 기획 2박 3일 여행 상품 남해 여행 콘텐츠 다변화 등 계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해 살아가기 여행 상품 '여행이 필요할 때, 남해'가 9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여행이 필요할 때, 남해'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자 기획된 2박 3일 반패 키지 여행 상품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진행한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는 15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참가자 98% 이상이 상품을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95% 이상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남해각 해설투어, 비누 만들기,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를 포함한 필수 체험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관광객 만족도가 높은 이번 생활관광 사업은 앞으로 남해 여행 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그 지평을 넓혀 나가는 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우선, 독일마을과 다랭이마을 등 삼동면과 남면에 집중됐던 남해 여행지를 남해읍과 이동면 일대로 변화·분산했던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그동안 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했던 미국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미국마을 5개 펜션과 연계해 필수 숙박 장소로 지정했으며, 미국마을이 있는 이동면을 중심으로 식음료 쿠폰인 소비쿠폰 사용처를 모집·선정했다.

또한, 현지인 정보를 수집해 미국마을 주변 생활관광 자원 정보를 소개한 엽서형 안내도를 제작함으로써 대중에게 해당 지역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생활관광 사업을 통해 남해다운 관광문화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생활형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했다"며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찾았고, 방문객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는 등 생활관광 사업이 남해관광을 새롭게 홍보하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허귀용 기자



허귀용 기자 enaga@idomin.com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